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 “한국 독식”

굿모닝증권, 건설 4사 70억-100억달러 달해 ... 총 사업비 160억달러

굿모닝증권은 4월21일 총 사업비가 160억달러에 달하는 쿠웨이트의 Al-Jubail 정유공장 건설을 한국기업이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선일·성준원 연구원은 “쿠웨이트 국영 정유기업 KNPC에서 발주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정유공장 입찰 결과가 이르면 4월 말에 발표될 전망”이라며 “한국의 4사가 4개 프로젝트를 모두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기업들이 수주하면 70억-100억달러에 달하는 수주 실적 외에도 상당한 부수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시장 전망이 밝은 정유 플랜트에서 강자로 부상하게 돼 조만간 발주될 80억달러 쿠웨이트 기존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GS건설은 핵심공정이자 규모가 가장 큰 프로젝트 I의 수주가 유력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정유 플랜트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21>